

중등일반영어교육단계에서의 CLT와 TBLT교수방법

황 철 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외국어교육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세계적으로 리용되고있는 교수내용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중등일반외국어교육에서는 지난 시기의 문법—번역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회화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교육에 적극 도입하고있다.

전통적인 외국어교수방법에서 듣기와 말하기활동은 교원이 읽어주거나 녹음기에 녹음된 본문(대화나 이야기)을 반복하여 듣기, 들은 내용에 대한 문답, 주어진 실마리에 기초하여 반응하기, 들은 내용을 다시말하기 같은것들이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언어가 현실에서 사용되는 다목적적인 방식과 완전히 차이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언어교육에서 CLT(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라는 언어교제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수방법론이 제시되였다.

CLT교수방법론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목적을 교제능력을 키우는데 두고 있다. 실례로 전통적인 읽기의 목적은 어휘와 문법과 같은 언어자료를 배워주는것이였다. 그러나 CLT에서는 읽기의 목적이 의미나 정보를 도출해내는데 있다. 그리고 어휘와 문법의 습득은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CLT에서는 추려읽기(skimming)와 훑어읽기(scanning)와 같은 각이한 읽기기능들을 숙련하게 된다. CLT에서 쓰기교수도 교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되게 된다. 학생들은 자기들의 감정이나 경험을 글로 표현하기 위하여 쓰기련습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CLT는 교원의 측면에서 보면 높은 수준의 교제능력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문법구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것은 물론 외국어소유정도에서도 모국어수준과 거의 동등한 능력을 소유할것을 요구한다. 또한 CLT가 적용되는 교수에서 교원의 역할은 새로운 지식 전수보다도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는데 즉 활동을 조직하거나 학생들이 조별로 련습하도록 지도하는데 돌려지게 된다.

CLT의 기본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교수시간에 학생들을 여러가지 교제활동(communative activities)에 적극적으로 인입시켜 언어를 배울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교수리론적측면에서 볼 때 교제활동에는 기능적교제활동(functional communicative activities)과 사회적교제활동(social interaction activities)이 있다.

기능적교제활동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 Identifying pictures 그림들을 구별하기

- Discovering identical pairs 동일한 짝을 찾기
- Discovering sequences or locations 순차나 위치를 찾기
- Discovering missing information 빠진 정보를 찾기
- Discovering missing features 빠진 특징을 찾기
- Discovering secrets 실마리찾기
- Discovering differences 차이점찾기
- Following directions 방향따르기
- Reconstructing story sequence 이야기의 순서를 재조직하기
- Pooling information to solve a problem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수집하기

사회적교제활동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 Role-playing through cued dialogues 실마리대화를 통한 역말아하기
- Role-playing through cues and information 실마리와 정보를 통한 역말아하기
- Role-playing through situation and goals 환경에 맞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역말아하기
- Role-playing through debate or discussion 논쟁과 토론을 통한 역말아하기
- Large-scale simulation activities 규모가 큰 가상교제활동
- Improvisation 즉석에서 하기

이로부터 교제활동의 기본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볼수 있다.

첫째로, 교제활동이 교제목적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언어지식 그자체를 연습하는데 목적을 둔 활동은 교제활동이 아니다. 학생들이 현실적인 교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사를 소통하는 활동이 교제활동이다. 현실에서 교제의 목적은 주로 교제대방들사이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것이다.

둘째로, 교제활동에서는 학생들이 교제를 진행할 때 언어지식의 형태보다도 내용에 집중한다는것이다.

교제활동에서는 의사를 소통하려고 하는 정보내용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보내용을 표현하는 언어지식의 형태에는 주의가 덜 돌려지게 된다.

셋째로, 교제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한개의 특정한 언어형태가 아니라 각이한 언어형태를 사용한다는것이다.

언어지식 그자체를 연습하는데 목적을 둔 활동은 주로 한가지 언어형태에 집중하여 진행되게 되지만 교제활동에서는 이미 습득한 여러가지 언어형태들을 리용하게 된다.

넷째로, 교제활동은 학생들자체로 진행하는 활동이라는것이다.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교제활동은 주로 학생들사이의 교제활동이며 이 교제활동에 교원은 교제대방으로만 참가할수 있다. 교제활동이 끝난 다음 교원은 학생들의 교제과정에 나타난 오류들에 대하여 지적할수 있지만 교제활동과정에는 교원의 간섭이 필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제에 기초한 교수방법 TBLT(Task-based Language Teaching)는 사실상 CLT를 발전시킨것이다. TBLT는 언어가 현실에서 리용되는 방식으로 습득하여야 한다는 교제식방법의 기본원리를 계승하고있다. 그러나 TBLT는 언어교제능력은 물론 언어의 형태도 중시할것을 주장한다. TBLT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과제이다.

어느 한 교수방법연구자는 《과제란 본질적으로는 교제목적을 위한것이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모임이나 짝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게 무어진 모임이나 짝들은 표현된 언어행위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나 본문재구성과 같은 언어활용능력을 위한 전체들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물은 참가자들사이의 호상협조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과제형식의 테두리안에서 완성되며 해당하는 결론을 얻게 된다.》라고 과제의 본질을 규정하였다.

과제는 언어활용능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교수시간에 학생들사이에 진행되는 목적의식적이며 현실적인 교제활동을 통하여 수행된다.

과제는 4가지 구성요소 즉 목적(purpose), 정황(context), 과정(process), 결과(product)로 이루어진다.

과제의 목적이란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바라거나 실현하려는 목표를 의미하며 과제의 정황이란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사이의 관계, 시간, 장소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현실적일수도 있고 가상의것일수도 있다. 과정이란 문제해결, 추리하기, 질문하기, 개념화하기 등과 같은 학습전략의 리용과 관련된 개념이다. 결과는 볼수 있는것(실례로 글로 쓴 계획, 편지)과 볼수 없는것(실례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기, 다른 나라에 대하여 알기)일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와 관련된 개념이다.

과제를 수행할 때 학생들은 의사소통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학생들의 주의를 언어의 개별적인 측면 실례로 어휘나 문법, 개별적인 언어행위기능에 집중시킬 때도 있다. 이런 활동을 연습(exercises)이라고 부른다.

다른 종류의 활동은 특정한 문법항목과 같은 언어자료를 정황속에서 연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례로 그림을 보면서 그림내용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현재지속시칭을 연습하는 활동을 들수 있다. 이런 활동을 연습과제(exercise-task)라고 한다. 연습과제는 CLT에서 아주 보편적인데 이것은 과제와 연습의 사이에 있다.

그러면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

과제를 설정할 때 먼저 다음의 4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첫째로, 과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둘째로, 과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셋째로, 과제가 어떻게 수행될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넷째로, 과제가 어떤 정황속에서 수행될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과제설정단계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로 나눌수 있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 능력을 분석한다. 다시말하여 그들이 무엇을 배울것을 요구하며 어떤것에 흥미를 가지는가, 그들의 언어능력은 어떠한가, 어떤것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어떤것을 쉽게 할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2단계에서는 가능한 과제의 목록을 작성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것이라고 보아지는 교과서의 주제에 대한 과제의 목록을 작성한다. 여기에서는 과제가 교제목적(communivative purpose)과 일정한 목표지향성(goal-oriented)을 가지고있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실례로 학교에 꾸러진 도서관에 대한 안내지도를 영어로 만든다든가, 평양시의 최근 변화에 대한 그림과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있는 직판판을 만든다든가 하는것들은 교제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있다.

3단계에서는 목록으로 만든 과제들을 교육학적가치의 측면,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 능력의 측면, 다른 원천들을 쉽게 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의 측면, 과제수행시간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에 기초하여 일부 과제들은 변경시키든가 없애버린다. 그다음 난도에 따라 과제의 순서를 결정한다.

4단계에서는 과제수행과정에 학생들이 리용할 언어항목을 선택한다. 두 단계로 과제가 요구하는 언어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첫 단계에서는 이미 계획한 과제를 그대로 리용할것인가 혹은 버릴것인가 혹은 수정할것인가를 결심하기 위하여 언어학적난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두번째 단계에서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되는 가능한 언어지식과 언어기능을 선택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부 연습과제들과 준비과제들을 통하여 기본과제수행을 위한 언어자료들을 미리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5단계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자료들을 준비한다.

문제는 CLT나 TBLT가 모두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육을 출발점으로 삼고있다는데 있다. CLT를 내놓은 교육학자들은 그 교수방법이 적용되는 교육형태를 ESL로 보고 여러가지 교제식교수방법을 내놓았다.

그러므로 우의 방법들이 완전히 적합하겠는가 하는것은 ESL과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교육의 차이점을 놓고 보아야 잘 알수 있다.

ESL교육에서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에 적응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언어를 그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인것으로 보며 문법교육을 중시하지 않고 교제일면만을 강조하게 된다.

ESL교육이 성공할수 있는 조건은 교실안에서의 교육과 교실밖에서의 교육이 호상 융합되어있는것이다.

ESL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교실안에서나 교실밖에서 영어를 유일하게 사용하는것이 필연적으로 제기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제1언어인 모국어의 사용률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에 제2언어인 영어의 사용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것이 영어이며 감수되는 모든것이 영어로 되는 언어관습이나 문화적배경인것으로 하여 학생들이 영어를 사회활동에서 기본적인 교제수단으로 하는것은 당연한것으로 되며 그러한 언어교제위주의 교육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것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EFL교육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가 힘들다.

영어가 오직 교실안에서만 전수되고 일단 영어수업이 끝나면 모국어환경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언어사용률에 있어서 모국어가 절대다수이며 영어는 교실안에서 영어수업 시간에만 리용되게 된다. 물론 외국어습득을 위해 교정에서의 회화기풍을 확립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풍도 언어환경의 제약을 받게 되어있다. 자기가 영어를 영국인처럼 말하게 되는지, 각이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언어를 자기가 리용하는지를时时각각 인식하고 그것을 다듬을수 있는 ESL과 같은 교육환경과 언어환경이 없다.

《CLT》나 《TBLT》의 교수방법에서는 교원의 역할을 될수록 줄이고 학생의 역할을 중시하게 된다. 여기서 교원은 안내자의 역할밖에 할수 없다. 이것은 언어교제를 목적으로 하면서 될수록 교원의 간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학생들이 조별론쟁과 문제풀이의 과정을 통하여 더 많이 말하고 의사소통을 진행할것을 요구한데로부터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수방법은 외국어교육을 학생을 위주로 하여 진행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며 학생들이 자신이 자체의 오유발견과 시정을 부단히 반복하는것으로써 외국어를 자연발생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된다.

그러나 ESL에서와 같은 교육환경과 언어환경이 마련되어있지 않는 EFL상태에서 구사되는 외국어의 능력이 학생들마다 다르고 오유발견과 시정의 능력도 제한되어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교수방법이 은을 내기는 힘들다.

특히 외국어를 처음으로 대상하는 소학교와 외국어의 기초를 착실히 쌓아야 하는 초·중·고등학교단계에서 CLT나 TBLT교수방법을 아무런 고려없이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지식전수의 순차성이 파괴되고 학생들의 논리적인식능력이 마비될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외국어기초지식이 어느 정도 다져진 고·중·고등학교단계에서 CLT와 TBLT교수방법의 좋은 점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는 혁신적인 외국어교수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그것을 외국어교육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당의 교육중시, 과학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중등일반영어교육, CLT교수방법, TBLT교수방법